

지방고객 노린 수도권 중고차 사기 ‘주의보’

인터넷 저렴한 ‘미끼 매물’ 보고 찾아갔다 비싼차 강매
광주·전남 피해 사례 많아...“싼 차는 허위매물 의심을”

광주시 동구에 사는 회사원 박모(36)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막상 업소에 도착하니, 해당 차량은 좀 전에 팔렸다고 다른 고가의 차량 구입을 권유한 것이다. 먼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에 걸렸던 박씨는 딜러업소 관계자가 소개한 차량을 구입했다. 박씨는 “수도권 중고차 매매단지 업주들이 광주 등 비수도권 구매자들에게 가짜 매물을 앞세워 사기를 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전화상으로 수차례 해당 차

량이 진짜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면서 “막상 당하고 보니 왕복 교통비에다 낭비한 시간까지,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중고차 시장이 밀집한 인천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에 ‘미끼 매물’을 올려놓고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중고차를 사실상 강매하는 사기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소비자들이 거주지 중고차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차량 종류도 다양하다는 매력 때문에 수도권 매매 상사를 찾았다가 되레 시세보다 높거나 질 낮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5년동안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 구제 신청은 1754건에 이른다. 이는 허위매물로 인해 사기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9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팔아 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한 피해자는 시세가 3000만원대인 수입중고차를 7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인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시가 42억원 상당의 중고차를 팔아 11억원을 챙긴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들이

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약서를 쓰도록 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핑계를 대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방문한 피해자의 경우 교통비와 하루 일정 등이 아까워 얼떨결에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에서 딜러의 정식 등록 여부와 평균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중고차를 구입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차량은 모두 허위매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황룡강 갈대밭의 은빛 가을 9일 광주시 서구 황룡강 둔치에 흐드러지게 핀 갈대 사이로 관광객들이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도 휘발유 탱크 사고 안전지대 아니다

광주·전남·북지역에서 대형 휘발유 탱크 등 위험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총 4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장물 누출 사고 33건, 폭발 사고 9건, 화재 5건, 탱크 전도 사고 1건 등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4년 여수시 해산동 도로에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는 등 지난 5년간 이동탱크 저장소

7건, 일반취급소 1건 등 총 8건의 탱크(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옥의 탱크 저장소 3건, 이동탱크 저장소 3건 등 6건의 사고가 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사고와 유사한 옥의 탱크 저장소만 놓고 보면 최근 5년간 폭발 사고 5건, 누출 사고 4건, 화재 2건 등 11건이 발생했다. 저장탱크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시설에 이뤄진 위험사항 조치 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총 9832

건(행정명령 6117건, 과태료 처분 2839건, 형사 입건 876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 121건, 전남 332건, 전북 542건 등 광주·전남·북은 995건이었으며, 관리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된 건수는 105건이었다. 나머지는 890건은 과태료 또는 행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 경인지사의 저유소 옥의 기름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휘발유 266만 8가 불에 타는 등 7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옥의 기름탱크가 다수 모여있는 저유소는 경기도 고양을 비롯해 광주시와 판교·대전·천안·대구·전주·원주 등 전국 8곳에 분포돼 있으며, 탱크수도 120여개에 이르지만, 외부에서 날아온 불씨 등 화재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여수와 울산 등 남해안 2곳에는 정유공장과 저유소를 연결하는 송유관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수송하는 시설인 펌핑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4
해질녘 18:05

달 뜨는 시간 07:21
달 지는 시간 19:05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오전까지 5~20mm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 비온 뒤 갬 15/18 보성 구름많음 13/18 인천 서울 춘천 강릉
목포 비온 뒤 갬 16/19 순천 구름많음 15/20 대전 청주 독도
여수 구름많음 16/19 영광 비온 뒤 갬 15/18 광주 대구 부산
나주 비온 뒤 갬 14/19 진도 비온 뒤 갬 16/18 전주
완도 구름많음 16/19 전주 비온 뒤 갬 15/17 군산 비온 뒤 갬 13/17
구례 비온 뒤 갬 13/18 나주 비온 뒤 갬 13/17 광주
강진 구름많음 15/19 남원 비온 뒤 갬 13/17 해남 구름많음 15/19 흑산도 비온 뒤 갬 16/18
장성 비온 뒤 갬 14/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3.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식중독

보통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56 20:16	02:45 15:07
여수	03:21 15:44	09:27 21:58

◇주간 날씨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9/17	7/20	9/22	9/22	10/22	11/22	12/22

광주 기간제 교사 2명중 1명 담임 맡고 있다

광주 유·초·중등 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학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는 모두 1921명으로 이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1002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93명 중 28명(30%), 중학교 713명 중 448명(63%), 고교 922명 중 479명(52%), 특수학교 76명 중 44명(58%), 기타학교 10명 중 3명(30%)이 담임을 맡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치원 근무 기간제 교사 107명은 모두 담임을 맡지 않고 있다. 전국에는 49%에 해당하는 2만4450명이 담임교사다. 전남은 기간제 교사 2267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738명이 담임으로 근무 중이다. 초등학교 342명 중 162명(47%), 중학교 609명 중 245명(40%), 고교 779명 중 296명(38%), 특수학교 66명 중 35명(53%)이 담임을 맡고 있다. 유치원 기간제 교사 466명과 기타 학교로 분류된 곳에 근무 중인 교사 5명은 모두 담임을 맡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목포지역 고교 교사 2명 학생 성희롱 혐의 검찰 송치

목포지역 고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성희롱 등)로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 목포 A고 교사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교사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들은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수차례 걸쳐 안마를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현재 이들 교사를 직무해제 조치했으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레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